

경남 진주시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 경남 진주시에 '23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453억원을 투입하여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예정
- 경상남도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항노화, 그린에너지 등 주력산업분야의 창업기업 지원과 성장을 지원하여, 그린 디지털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상남도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기반(인프라)들이 하나의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하여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기반(인프라)이 이미 구축된 도심내 젊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조성하고, 친환경·기후 기술(테크)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건물내에 에너지관리·재생 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부는 충청남도 천안('20년), 광주광역시('21년), 대구광역시('22년), 강원도 원주('22년)의 총 4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중에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경상남도 진주까지 포함하면 전국 5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5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여 그 어느때보다 열띤 경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주시가 선정되었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창업열기와 대한민국의 창업 의지가 뜨거움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정된 경상남도 진주시는 “도시재생 지(G)-그린 디지털 스퀘어”라는 사업명 아래, “지역혁신과 성장을 선도하는 젊은 경남의 미래, 경남 그린 디지털 산업의 씽크 탱크(Think Tank) 플랫폼”이라는 컨셉으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진주시 사업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지)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50-1번지 일원 - (총사업비) 453억 - (조성규모) 대지면적 9,379 m², 연면적 8,768.9 m² (지상6층, 지하2층) - (운영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p>복합허브센터(조감도)</p>	<p>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종합계획도</p>

특히, 경상남도 진주시의 사업은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를 중심으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진주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연결과, 인근 3개 도시 재생지구(성북, 강남, 상대) 및 우주항공 관련 지역기반(인프라)을 기반으로, ①항공우주산업(부품, 소재), ②항노화산업, ③그린에너지 산업(신재생, 친환경), ④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과 성장 계획의 연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상남도(진주시)에 소속된 창업지원단을 통한 대기업, 투자기관, 대학 등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전략을 수립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지방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과 관련된 협력지구(클러스터) 형태의 기반(인프라)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창업의지가 강한 젊은이들이 창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입지환경개선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령 (044-204-7580)
		담당자	사무관	장석원 (044-204-7582)
			주무관	권대호 (044-204-7578)



1 개요 및 조성

- 유망기업과 젊은 인재의 유입을 위해 정주 여건 및 지역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심지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 지역창업거점으로서의 복합허브센터 건립 지원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 연계, 국비 145억 지원)
 - (복합허브센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입주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타운 운영을 총괄하는 앵커시설로 조성
 - *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기존 창업인프라와 동일 건물 또는 인근 별개 건축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물리적·기능적 연계가능하도록 앵커시설로 조성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하여 타운 내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기반 강화

< 그린 스타트업 타운 개요 및 조감도(안) >

기업집적·지원	주거·문화·복지	복합허브센터
스타트업 파크 (창업기업 입주)	복지타운 (주거·체육시설 등)	그린 인프라 (재생에너지 활용 등)
지식산업센터 (성장기업 입주)	상업·문화·여가 (백화점·도서관 등)	디지털 인프라 (IoT 빌딩 등)
메이커스페이스, 특화센터 등	공공·커뮤니티 (공원 등)	기업지원 인프라 (R&D 기관 입주)



2 탄소저감 및 친환경

- 타운 조성 관련 탄소 저감량 목표 설정 및 체계적 관리
- 친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지열공급 등)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하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효율화 방안 고려
- 친환경, 디지털 등 비공해 업종의 입주기업을 포함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을 집적하여 지원